

지문 목차 _ 문학 1권 <2017~2021>

Day 1 _ 020P

[현대시] 2021.12 [43~45] '그리움 / 마음의 고향 2 - 그 언덕'
[현대소설] 2020.09 [42~45] '자서전들 쓰십시오'
[고전소설] 2017.06 [43~45] '최척전'

Day 2 _ 028P

[현대소설] 2018.09 [43~45] '눈이 오면'
[고전소설] 2019.11 [36~38] '임장군전'
[고전시가+수필] 2020.11 [21~25] '월선헌십육경가 / 어촌기'

Day 3 _ 036P

[고전소설] 2019.06 [39~42] '옹고집전'
[고전시가+수필] 2018.06 [42~45] '오윤가 / 차마설'
[현대시] 2021.06 [22~24] '산상의 노래 / 나무의 수사학 1'

Day 4 _ 044P

[고전소설] 2020.06 [23~26] '조웅전'
[고전시가+수필] 2018.11 [33~37] '비가 / 풍란'
[현대소설] 2019.06 [43~45] '한계령'

Day 5 _ 052P

[고전시가+현대시] 2019.09 [16~20] '한거십팔곡 / 추억에서'
[현대소설] 2021.09 [16~19] '고향'
[고전소설] 2020.09 [32~34] '장끼전'

Day 6 _ 060P

[극문학] 2019.09 [39~41] '공동 경비 구역 JSA'
[현대시] 2020.09 [35~37] '청명 / 초록 바람의 전언'
[고전시가+수필] 2021.09 [38~42] '만흥 / 우연'

Day 7 _ 066P

[현대시+수필] 2019.06 [27~31] '휴전선 / 우포늪 옥새 / 주을온천행'
[고전소설] 2018.11 [23~26] '사씨남정기'
[현대소설] 2017.06 [39~42] '삼대'

Day 8 _ 074P

[현대시] 2019.11 [33~35] '출생기 / 사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고전시가] 2017.09 [16~18] '방옹시여'
[고전소설+극문학] 2021.06 [41~45] '전우치전 / 전우치'

Day 9 _ 082P

[현대소설] 2018.11 [43~45] '관촌수필'
[고전소설] 2021.12 [31~33] '최고운전'
[현대시+극문학] 2017.11 [27~32] '구름의 파수병 / 느낌, 극락같은'

Day 10 _ 090P

[고전시가+수필] 2020.06 [32~36] '유원십이곡 / 조용'
[고전소설] 2018.06 [35~38] '적성의전'
[현대시] 2021.09 [43~45] '사령 /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Day 11 _ 098P

[고전시가] 2017.06 [25~27] '동동 / 가시리'
[현대소설] 2021.12 [22~25] '사막을 건너는 법'
[현대시] 2018.09 [20~22] '플라타너스 / 달'

Day 12 _ 104P

[현대시] 2017.09 [19~20] '병원 / 나무'
[고전시가] 2019.11 [43~45] '일동장유가'
[현대소설] 2018.06 [39~41] '큰 산'

Day 13 _ 110P

[고전시가+수필] 2021.12 [38~42] '사미인곡 / 창 밖의 워석벽석~ / 옛집 정승초당을 보고 쓰다'
[극문학+현대소설] 2017.09 [21~24] '독 짓는 늙은이'
[고전소설] 2019.09 [26~28] '홍길동전'

Day 14 _ 118P

[현대소설] 2021.06 [34~37]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현대시] 2017.06 [34~38] '향현 / 우리가 물이 되어 / 눈'
[고전소설] 2020.11 [33~36] '유씨삼대록'

Day 15 _ 124P

[현대시] 2018.06 [26~29] '고풍 의상 / 결빙의 아버지'
[고전시가] 2020.09 [16~20] '상춘곡 / 고산구곡가'
[고전소설+현대소설] 2017.11 [21~26] '박씨전 / 시장과 전장'

Day 16 _ 132P

[고전시가] 2017.11 [43~45] '연행가'
[현대소설] 2020.06 [16~18] '토지'
[고전소설] 2021.09 [31~33] '심청전'

Day 17 _ 138P

[현대시] 2020.11 [43~45] '바람이 불어 / 새'

[고전소설+고전시가] 2018.09 [33~37] '춘향전 / 춘향이별가'

[현대소설] 2019.09 [42~45] '비 오는 길'

Day 18 _ 146P

[극문학] 2018.09 [23~26] '불모지'

[현대시] 2020.06 [43~45] '추일서정 / 하늘과 돌맹이'

[고전시가] 2021.06 [38~40] '관동별곡'

Day 19 _ 152P

[현대시] 2018.11 [20~22] '강 건너간 노래 / 묘비명'

[현대소설] 2020.11 [30~32] '자전거 도둑'

[고전시가] 2019.06 [32~34] '서경별곡 / 만분가'

Day 20 _ 158P

[고전소설] 2017.09 [40~45] '김현감호 / 이생규장전'

[현대소설+극문학] 2019.11 [21~26] '천변풍경 / 오발탄'

지문 목차 _ 문학 2권 <2022~2026>

Day 21

[현대시+수필] 2022.11 [18~23] '초가 / 거산호 2 / 담초'
[현대소설] 2026.06 [18~21] '표구된 휴지'
[고전소설] 2025.09 [18~21] '광한루기'

Day 22

[현대소설] 2023.11 [27~30] '쓰러지는 빛'
[고전시가+수필] 2025.06 [22~26] '우부가 / 타농설'
[현대시] 2024.06 [31~34] '맹세 / 봄'

Day 23

[현대시+수필] 2025.11 [22~27] '배를 밀며 / 혼자 가는 먼 집
/ 이젠 되도록 편지 안 드리겠습니다'
[고전소설] 2022예시 [11~15] '박씨전 / 조보'
[고전시가] 2024.09 [32~34] '성산별곡 / 생매 잡아 길 잘 들어~'

Day 24

[현대소설] 2023.06 [28~31] '미스터 방'
[고전시가] 2022.09 [32~34] '규원가 / 재 위에 우뚝 선~'
[고전소설] 2026.09 [18~21] '이화전'

Day 25

[고전시가] 2022.11 [32~34] '탄궁가 / 농가'
[현대소설] 2023.09 [28~31] '크리스마스 캐럴 5'
[현대시+수필] 2026.11 [22~26] '그리움 / 감나무 그늘 아래
/ 최립에게 주는 글'

Day 26

[현대소설] 2025.09 [28~31] '날개 또는 수갑'
[현대시] 2022.06 [32~34] '연륜 / 대장간의 유혹'
[고전소설] 2023.09 [18~21] '정수정전'

Day 27

[고전시가+수필] 2026.06 [22~26] '동유가 / 해촌 일지'
[고전소설] 2022.09 [18~21] '배비장전'
[현대시] 2025.06 [31~34] '청산행 / 사실과 관습 : 고독 이후'

Day 28

[고전소설] 2026.11 [18~21] '수궁가'
[고전시가+수필] 2022.06 [22~27] '유객 / 율리유곡 / 조어삼매'
[현대소설] 2024.09 [28~31] '원미동 시인'

Day 29

[고전시가+수필] 2023.11 [22~26] '도산십이곡 / 지수정가 / 겸재의 빛'
[고전소설] 2025.11 [18~21] '정음선전'
[현대시] 2022.09 [28~31] '종가 / 노래와 이야기'

Day 30

[현대소설] 2024.06 [27~30] '무성격자'
[고전시가] 2026.09 [27~30] '화전가 / 공명을 헤아리니~ / 석문가'
[현대시] 2022예시 [1~4] '수라 / 신의 방'

Day 31

[고전소설] 2024.11 [18~21] '김원전'
[현대시+수필] 2025.09 [22~27] '북방에서-정현웅에게 / 살얼음
아래 같은 데 2 - 생가 / 이문원노종기'
[현대소설] 2026.09 [31~34] '두 출발'

Day 32

[고전소설] 2022.06 [28~31] '채봉감별곡'
[현대소설] 2025.06 [27~30] '아버지의 땅'
[고전시가+수필] 2024.06 [22~26] '한거십팔곡 / 기취서행'

Day 33

[고전소설] 2026.06 [27~30] '김진옥전'
[현대시] 2023.06 [32~34] '향아 / 전문가'
[고전시가] 2024.11 [32~34] '일동장유가 / 화암구곡'

Day 34

[현대소설] 2022.06 [18~21] '무사와 악사'
[현대시+수필] 2023.09 [22~27] '별-금강산시 3 / 길 / 편지'
[고전시가] 2025.11 [32~34] '갑민가 / 녹양방초 언덕에~'

Day 35

[현대소설+극문학] 2022.09 [22~27] '갯마을'
[고전소설] 2025.06 [18~21] '이대봉전'
[현대시+수필] 2026.09 [22~26] '경사 / 달빛 체질 / 용연사기'

Day 36

[현대시+수필] 2024.09 [22~27] '월훈 / 연 1 / 문의당기'
[고전시가] 2022예시 [22~25] '개와 관련된 시조'
[현대소설] 2025.11 [28~31]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

Day 37

[현대시] 2026.06 [31~34] '살구꽃과 한때 / 역사'
[고전소설] 2022.11 [28~31] '박태보전'
[고전시가] 2025.09 [32~34] '풍파에 일렁이던~
/ 심의산 서너 바퀴~ / 호아곡'

Day 38

[현대소설] 2026.11 [27~30] '독가촌 풍경'
[고전소설] 2024.09 [18~21] '숙영낭자전'
[고전시가] 2023.09 [32~34] '어부단가 / 소유정가'

Day 39

[현대시] 2023.11 [31~34] '채전 / 음지의 꽃'
[고전소설] 2024.06 [18~21] '상사동기'
[현대소설] 2022.11 [24~27]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

Day 40

[고전시가] 2026.11 [31~34] '북새곡 / 이 시름 저 시름~
/ 강원도 설화지를~'
[고전소설] 2023.11 [18~21] '최척전'
[현대소설] 2022예시 [26~29] '무정'

Day 41

[고전시가+수필] 2023.06 [22~27] '사시가 / 자도사
/ 그 시절 우리들의 집'
[현대소설] 2024.11 [28~31] '골목 안'

Day 42

[고전소설] 2023.06 [18~21] '소현성록'
[현대시+수필] 2024.11 [22~27] '문 / 가지가 담을 넘을 때
/ 잊음을 논함'

연도별 기준 목차 (문학 1권 : 2017~2021)

이 교재의 구성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풀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연도별 기준 목차'를 제공합니다. 이 페이지에 제시된 순서대로 푸시면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부터 순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1등급 커트라인 90점>

[고전시가] 2017.06 [25~27] '동동 / 가시리'	098P
[현대시] 2017.06 [34~38] '향현 / 우리가 물이 되어 / 눈'	120P
[현대소설] 2017.06 [39~42] '삼대'	072P
[고전소설] 2017.06 [43~45] '최척전'	025P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1등급 커트라인 90점>

[고전시가] 2017.09 [16~18] '방옹시여'	076P
[현대시] 2017.09 [19~20] '병원 / 나무'	104P
[극문학+현대소설] 2017.09 [21~24] '독 짓는 늙은이'	113P
[고전소설] 2017.09 [40~45] '김현감호 / 이생규장전'	158P

2017학년도 수능

<1등급 커트라인 92점>

[고전소설+현대소설] 2017.11 [21~26] '박씨전 / 시장과 전장'	128P
[현대시+극문학] 2017.11 [27~32] '구름의 파수병 / 느낌, 극락같은'	086P
[고전시가] 2017.11 [43~45] '연행가'	132P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1등급 커트라인 89점>

[현대시] 2018.06 [26~29] '고풍 의상 / 결빙의 아버지'	124P
[고전소설] 2018.06 [35~38] '적성익전'	093P
[현대소설] 2018.06 [39~41] '큰 산'	108P
[고전시가+수필] 2018.06 [42~45] '오윤가 / 차마설'	040P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1등급 커트라인 93점>

[현대시] 2018.09 [20~22] '플라타너스 / 달'	102P
[극문학] 2018.09 [23~26] '불모지'	146P
[고전소설+고전시가] 2018.09 [33~37] '춘향전 / 춘향이별가'	140P
[현대소설] 2018.09 [43~45] '눈이 오면'	028P

2018학년도 수능

<1등급 커트라인 94점>

[현대시] 2018.11 [20~22] '강 건너간 노래 / 묘비명'	152P
[고전소설] 2018.11 [23~26] '사씨남정기'	069P
[고전시가+수필] 2018.11 [33~37] '비가 / 풍란'	047P
[현대소설] 2018.11 [43~45] '관촌수필'	082P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1등급 커트라인 91점>

[현대시+수필] 2019.06 [27~31] '휴전선 / 우포늪 약새 / 주을온천행'	066P
[고전시가] 2019.06 [32~34] '서경별곡 / 만분가'	156P
[고전소설] 2019.06 [39~42] '웅고집전'	036P
[현대소설] 2019.06 [43~45] '한계령'	050P

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1등급 커트라인 97점>

[고전시가+현대시] 2019.09 [16~20] '한거십팔곡 / 추억에서'	052P
[고전소설] 2019.09 [26~28] '홍길동전'	116P
[극문학] 2019.09 [39~41] '공동 경비 구역 JSA'	060P
[현대소설] 2019.09 [42~45] '비 오는 길'	144P

2019학년도 수능

<1등급 커트라인 84점>

[현대소설+극문학] 2019.11 [21~26] '천변풍경 / 오발탄'	162P
[현대시] 2019.11 [33~35] '출생기 / 사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074P
[고전소설] 2019.11 [36~38] '임장군전'	030P
[고전시가] 2019.11 [43~45] '일동장유가'	106P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1등급 커트라인 87점>

[현대소설] 2020.06 [16~18] '토지'	134P
[고전소설] 2020.06 [23~26] '조웅전'	044P
[고전시가+수필] 2020.06 [32~36] '유원십이곡 / 조용'	090P
[현대시] 2020.06 [43~45] '추일서정 / 하늘과 돌멩이'	148P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1등급 커트라인 90점>

[고전시가] 2020.09 [16~20] '상춘곡 / 고산구곡가'	126P
[고전소설] 2020.09 [32~34] '장끼전'	058P
[현대시] 2020.09 [35~37] '청명 / 초록 바람의 전언'	062P
[현대소설] 2020.09 [42~45] '자서전들 쓰십시다'	022P

2020학년도 수능

<1등급 커트라인 91점>

[고전시가+수필] 2020.11 [21~25] '월선현십육경가 / 어촌기'	032P
[현대소설] 2020.11 [30~32] '자전거 도둑'	154P
[고전소설] 2020.11 [33~36] '유씨삼대록'	122P
[현대시] 2020.11 [43~45] '바람이 불어 / 새'	138P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1등급 커트라인 92점>

[현대시] 2021.06 [22~24] '산상의 노래 / 나무의 수사학 1'	042P
[현대소설] 2021.06 [34~37]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118P
[고전시가] 2021.06 [38~40] '관동별곡'	150P
[고전소설+극문학] 2021.06 [41~45] '전우치전 / 전우치'	078P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1등급 커트라인 90점>

[현대소설] 2021.09 [16~19] '고향'	054P
[고전소설] 2021.09 [31~33] '심청전'	136P
[고전시가+수필] 2021.09 [38~42] '만흥 / 우연'	064P
[현대시] 2021.09 [43~45] '사령 /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096P

2021학년도 수능

<1등급 커트라인 88점>

[현대소설] 2021.12 [22~25] '사막을 건너는 법'	100P
[고전소설] 2021.12 [31~33] '최고운전'	084P
[고전시가+수필] 2021.12 [38~42] '사미인곡 / 창 밧기 워석버석~ / 옛집 정승초당을 둘러보고 쓰다'	110P
[현대시] 2021.12 [43~45] '그리움 / 마음의 고향 2 - 그 언덕'	020P

[92~9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8.11 [43~45]

(해설 p.174)

조무래기들은 도깨비불만 보면 네 그르니 내 옴으니 하며 짜그락거리기 일쑤였고, 그러면 나이 좀 있는 사람이 얼른 쉬쉬하면서, 도깨비가 뜰겠다고 나무라 주게 마련이었던 것이다. 도깨비가 들으면 무엇이 어떻다고 불뚱 끄듯 서두르며 말리려 들었을까. 그것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 알면서도 짐짓 모르는 시늉을 해 보아도, 그네들도 어려서부터 가르쳐 준 이가 없어 이렇다 하게 내놓지 못하는 눈치가 역연하던 것이다. 그것은 바지랑대에 등을 매달고 멍석에 둘러앉아 삼삼을 삼거나 태모시를 튼던* 늘그막의 아낙네들도 마찬가지로 가늠을 못 해, 도깨비불에 손가락질하면 도깨비가 쫓아온다는 것밖에 다른 말은 할 줄 모르고 있었다. 그네들은 낮춘말로, 도깨비들이 벌거벗고 산다더라고 귀뜸해 주었으며, 그것은 그것들이 여름내 왕대뽕 자드락이나 갯가에 나와 불놀이를 하다가도, ㉠ 기러기 그림자에 논두렁 콩노릇*이 지고 오려논에 자마구*가 일며부터는 아무도 모르게 간곳없이 사라지던 것을 보아 믿을 만한 말이라고 우길 따름이었다.

된내기* 빛에 두엄이 허영게 쉼 위로 난초 치던 붓끝 같은 마늘 싹이 솟고, 보리밭 머리에 장끼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듬해 구렁찰 논배미에서 뜸— 뜸— 뜸부기 짹짹하는 소리로 개구리 논두렁 넘기 바쁘던 여름까지는 도깨비들이 감못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아직 학령기에도 이르지 않았던 나는 정말 알지 못했다. 차지던 바람이 메저지고 개펄에 성에 엉기듯 허영게 소금기가 끼는 철이 되면, 음습한 바람이 맴돌아야 난동하던 인화(燐火)가 전혀 일지 않던 것을.

어른들이 눈을 꿈적이며 먹탕곳 개펄계를 그만 보라고 타이른 밤이면 ㉡ 담 밑에 반딧불만 자주 날아도, 촛불 불이려 혼자 사당(祠堂)문을 열 때처럼 뒷덜미가 선뜩하고 떨떠름하여 담 밑에도 가지 못할 만큼이나 그 도깨비불은 여간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런 날은 아무리 무더워도 모기가 떴메어 간다는 핑계로 마실 마당에서 일찍 물러나곤 하였다.

(중략)

복산이가 자리를 만들 동안 나는 변소를 찾아 나갔다.

농가라면 흔히 그렇듯 그곳은 저만치 밭마당 구석에 따로 나와 있었다. ㉢ 나는 마당을 가로질러 가면서 무심결에 개펄 쪽을 둘러보다가 소스라쳐 놀라며 그 자리에 굳어 버리고 말았다.

아— 나는 참으로 오랜만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도깨비불—— 그렇다. 왕대뽕 밑 먹탕곳 개펄에 푸른빛을 내뿜는 도깨비불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던 것이다.

하나 둘 서이 너이…… 나는 어느새 도깨비불들을 손가락으로 헤아려 나가고 있었다. 변치 않은 것이 한 가지 더 있다는 반가움, 반가움과 즐거움에 들떠 그것들을 차곡차곡 빠뜨리지 않고 세어 나갔다.

“마흔다섯…….”

하고 중얼거리며 나는 손가락을 떨었다. ㉣ 내일 새벽엔 안개도 볼 수 있으리라고 믿어, 가슴의 설렘에 손가락마저 떨린 거였다. 모를 일이었다. 옛날로 돌아가 혹시 길 잃은 여우가 울부짖게 될지도.

“게서 뭣 허나?”

복산이가 같은 용무로 나오면서 허탕지거리를 했다.

“아, 도깨비불…… 생전 못 볼 줄 알았다가 보니 좋은데. 멋있는걸.”

나는 건너편을 손가락질하면서 들뜬 소리로 말했다.

“무엇이?”

“저 도깨비불…….”

“무엇 불?”

“옛날에 보던 도깨비불, 그거 아녀?”

“무슨 불? 허어 참, 그러게 장가를 가라구.”

“…….”

“도깨비불 좋아하네…… 저게? 술고래라서 안주두 고루 먹어 헛소리는 안 헐 중 알았더니…….”

“그럼 모르겠는데…….”

“뭘 몰러? 저건 서울서 온 낚시꾼들의 간드레 불이여. 명색 문화인이라면서 밤낚시 한 번두 못 해 봤구먼.”

나는 무엇에 반혀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거꾸로 떨어진 기분이었다. 오랜 꿈결에서 순간적으로 깨어난 것처럼 허망하고 민망했다.

“이리 죽 늘어앉은 디는 물길이구, 저쪽 저리 둘러앉은 디가 유수지여. 갯물이 들어오면 수문을 막았다가 쓸물 때 열어 물을 빼는디 민물고기 갯물 고기가 섞이구 해서 씨알두 게가 굶구, 물길에서는 잔챙이래두 봉어만 문다네. 남포, 청라 담에는 여기를 친다는 겨.”

그제서야 나는 늘어앉은 불빛들이 제자리에 죽어 있

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㉔ 무등 타기와 숨바꼭질을 하던
살아 있는 불이 아니란 것만 진작 알았어도 마흔다섯까
지 수효를 헤아리지는 않았을 터였다. 나는 무슨 재산불
이를 어둠 속에 잃고 찾지 못한 투로 무거워진 가슴을
안고 복산이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이문구, 「관촌수필」-

- * 툇던 : 끝을 가늘고 부드럽게 하려고 톱으로 훑던.
- * 콩노릇 : 콩의 꽃.
- * 자마구 : 곡식의 꽃가루.
- * 된내기 : 된서리.
- * 감못하기도 : 보이던 것이 전연 보이지 않아 찾을 곳이 감감하기도.

9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복되는 사건을 제시하여 인물들의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 ② 빈번하게 장면을 교차하여 상황의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를 매개하는 경험을 제시하여 인물이 겪는 인식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시간의 역전을 통해 인과 관계를 재구성한 서사를 함께 제시하여 사건의 내막을 감추고 있다.

93 ㉑~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에는 어른들의 말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나'의 미심쩍음이 드러난다.
- ② ㉒에는 착각으로 인해 연상된 상황을 궁금해 하는 '나'의 호기심이 나타난다.
- ③ ㉓에는 우연히 발견한 대상에 대한 '나'의 반가움이 담겨 있다.
- ④ ㉔에는 예측하는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는 짐작에서 비롯된 '나'의 기대감이 나타난다.
- ⑤ ㉔에는 대상의 실체를 확인하기 전에 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한 '나'의 허무감이 드러난다.

9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금기란 어떤 대상을 꺼리거나 피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금기를 위반하면 그 대상에 의해 공동체 혹은 그 구성원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일반적으로 금기를 설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지만, 금기와 그 대상에 대한 추측은 구전의 방식을 통해 은밀하게 전파되어 구성원들 간에 회자된다. 이를 통해 금기와 금기의 대상이 환기하는 의미는 세대를 거쳐 전달됨으로써 서로 다른 세대 간에 공동체의 체험을 공유하는 데에 기여하기도 한다.

- ① '짜그락'거리는 '조무래기들'을 말리던 어른들이 그 이유를 '이렇다 하게 내놓지 못하는 눈치가 역연'하였던 것은, 금기가 설정된 근본적 이유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겠군.
- ② '늘그막의 아낙네들'이 아이들에게 '도깨비불에 손가락질하면 도깨비가 쫓아온다'고 말하는 것은, 공동체의 금기를 서로 다른 세대가 공유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그네들'이 '낮춘말'로 '도깨비들이 벌거벗고 산다'고 '귀뜸'을 해주는 행위는, 구전의 방식을 통해 금기의 대상에 대한 추측이 은밀하게 전파되는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겠군.
- ④ '아무리 무더위도' 핑계를 대고 '마실 마당에서 일찍 물러나곤' 한 것은, 금기를 위반한 '나'가 자신에게 닥칠 어른들의 처벌이 두려워서 한 행동이겠군.
- ⑤ '재산불이'를 잃은 듯 '무거워진 가슴을 안고' 방으로 들어가는 행동은, 공동체에서 공유되던 금기에 관련된 일들이 추억으로만 남게 된 상황에 대한 '나'의 심리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겠군.

(해설 p.179)

승상 나업은 딸 하나가 있었다. 재예(才藝)가 당대에 빼어났다. 아이는 이 말을 듣고 흰 옷으로 갈아입고 거울 고치는 장사라 속여 승상 집 앞에 가서 “거울 고치시오!”라 외쳤다. 소저는 이 말을 듣고 거울을 꺼내 유모에게 주어 보냈다. 소저는 유모 뒤를 따라 바깥문 안쪽까지 나가 문틈으로 엿보았다. 장사가 소저의 얼굴을 언뜻 보고 반해, 손에 쥐었던 거울을 일부러 떨어뜨려 깨뜨렸다. 유모가 놀라 화내며 때리자 장사가 울며 말했다.

“거울이 이미 깨졌거늘 때려 무엇 하세요? 저를 노비로 삼아 거울 값을 갚게 해 주세요.”

유모가 들어가 이를 승상께 아뢰니 허락하였다. 승상은 그의 이름을 거울을 깨뜨린 노비라는 뜻으로 파경노(破鏡奴)라 짓고 말 먹이는 일을 시켰다. 말들은 저절로 살찌 여윈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루는 천상의 선관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말 먹일 꼴을 다투어 그에게 주었다. 이에 파경노는 말들을 풀어놓고 누워만 있었다. 날이 저물어 말들이 파경노가 누워 있는 곳에 와 그를 향해 머리를 숙이며 늘어서자 보는 자마다 모두 기이하게 여겼다. 승상 부인은 이 말을 듣고 승상에게 말했다.

“파경노는 용모가 기이하고 탄복할 일이 많으니 필시 비범한 사람일 것입니다. 마부 일도, 천한 일도 맡기지 마세요.”

승상이 옳게 여겨 그 말을 따랐다. 이전에 승상은 동산에 꽃과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파경노에게 이를 기르게 했다. 이때부터 동산의 화초가 무성하며 조금도 시들지 않아, 봉황이 쌍쌍이 날아들어 꽃가지에 깃들었다.

열흘이 지났다. 파경노는 소저가 동산의 꽃을 보고 싶으나 파경노가 부끄러워 오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파경노는 승상을 뵈고 말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여러 해 지났습니다. 한 번도 노모를 뵈지 못했으니, 노모를 뵈고 올 말미를 주십시오.”

승상은 닳새를 주었다. 소저는 파경노가 귀향했다는 소식을 듣고 동산에 들어와 꽃을 보고,

“꽃이 난간 앞에서 웃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네.”라고 시를 지었다. 파경노는 꽃 사이에 숨어 있다가,

“새가 숲 아래서 우는데 눈물 보기 어렵네.”라고 시로 화답했다. 소저가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며 돌아갔다.

[중략 부분 줄거리] 중국 황제는 신라 왕에게 석함을 보내,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알아내 시를 지어 올리라 명한다. 신라 왕은 이

를 해결하지 못하고 나업에게 과업을 넘긴다.

나업은 집으로 돌아와 석함을 안고 통곡했다. 파경노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왜 우는지를 물었다. 사람들이 모두 말해 주자, 자못 기쁨을 띠며 꽃가지를 꺾어 외청으로 갔다.

소저가 슬피 울다가 문득 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보았다. 속으로 놀라 창틈으로 엿보니 파경노가 꽃을 들고 서 있었다. 소저가 이상히 여겨 묻자, 시치미를 떼며 말했다.

“그대가 이 꽃을 보고 싶다 하여 그대를 위해 가져 왔소. 시들기 전에 받아 보시오.”

소저가 한숨을 크게 쉬니, 파경노가 위로하며 말했다.

“거울 속에 비친 이가 반드시 그대 근심을 없애 줄 것이요. 근심치 말고 꽃을 받으시오.”

소저가 꽃을 받고 부끄러워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얼마 뒤 소저는 파경노의 말을 괴이히 여겨 승상께 말했다.

“파경노가 비록 어리지만 재주가 남보다 뛰어나고, 신인(神人)의 기운이 있어 석함 속의 물건을 알아내어 시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승상이 말했다.

“너는 어찌 쉽게 말하느냐? 만약 파경노가 할 수 있다면 나라의 이름난 선비 가운데 한 명도 시를 짓지 못해 이 석함을 나에게 맡겼겠느냐?”

소저가 말했다.

“뱀새는 비록 작지만 큰 새매를 살린다 합니다. 그가 비록 노둔하나 큰 재주를 지니고 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어서 파경노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음을 고했다.

“만약 그가 시를 지을 수 없다면 어찌 그런 말을 냈겠습니까? 원컨대 그를 불러 시험 삼아 시를 짓게 하소서.”

승상이 파경노를 불러 구슬리며 말했다.

“만약 이 석함 속의 물건을 알아내 시를 짓는다면 후한 상을 줄 것이며, 마땅히 네 뜻을 이루어 주겠다.”

파경노가 거절하며 말했다.

“비록 후한 상을 준다 한들 제가 어찌 시를 짓겠습니까?”

소저가 이 말을 듣고 승상에게 말했다.

“살고 싶고 죽기 싫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옛날에 어떤 이가 사형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 ‘네가 만약 시를 짓는다면 내 마땅히 사면해 주겠다.’ 했습니다. 그 사람은 무식한 이였으나 그 명을 따랐습니다. 하물

며 파경노는 문학이 넉넉해 시를 지을 수 있지만 거짓으로 못하는 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님께서 그를 겁박하시면 어찌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 복종치 않겠습니까?”

승상이 그럴듯하다 여기고 파경노를 불렀다.

-작자 미상, 「최고운전」-

95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역전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있다.
- ②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있다.
- ③ 인물의 희화화를 통해 사건의 반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 ④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 해결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꿈과 현실의 교차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

96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모에게 주어 보낸 ‘거울’은 아이가 소저의 얼굴을 보게 되는 계기를 만들고, 벽에 걸린 ‘거울’은 파경노가 소저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계기를 만든다.
- ② 깨뜨린 ‘거울’은 아이가 파경노라는 이름을 얻고 승상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고, 파경노가 관리한 동산의 ‘화초’는 승상 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계기로 작용한다.
- ③ 동산의 ‘꽃’은 소저가 보고 싶었으나 파경노로 인해 접근하기 어렵게 된 대상이고, 파경노가 들고 서 있던 ‘꽃’은 소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다.
- ④ 동산에서 화답한 ‘시’는 파경노가 소저와 교감하기 위해 읊은 것이고, 석함 속 물건에 대한 ‘시’는 파경노가 해결할 수 있다고 소저가 기대하는 과제이다.
- ⑤ 석함 속 물건에 대한 ‘시’는 나엽에게 슬픔을 유발하는 과업이지만, 파경노에게는 소저의 슬픔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이다.

9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최고운전」은 비범한 인물로서의 최치원을 형상화했다. 주인공은 문제 해결의 국면에서 치밀함, 기지, 당당함을 보인다. 또한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지닌 신이한 능력을 발휘하여 개인의 문제와 국가의 과제를 직접 해결한다. 이는 당대 독자들이 원했던 새로운 영웅상을 최치원에 투영하여 작품 속에서 구현한 것이다.

- ① 아이가 흰 옷으로 바꾸어 입고 거울 고치는 장사라 속이는 장면은 최치원이 치밀한 면모를 지닌 인물임을 보여 주는군.
- ② 파경노에게 선관들이 물려와 말먹이를 가져다주는 장면은 최치원이 초월적 존재에게 도움을 받는 인물임을 보여 주는군.
- ③ 파경노가 기른 뒤로 화초가 시들지 않아 봉황이 날아드는 장면은 최치원이 신이한 능력을 지닌 인물임을 보여 주는군.
- ④ 파경노가 노모를 핑계 삼아 말미를 얻는 장면은 최치원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기지를 발휘하는 인물임을 보여 주는군.
- ⑤ 파경노가 승상의 제안을 거절하는 장면은 최치원이 보상을 추구하기보다 스스로 국가의 과제를 해결하려는 당당한 인물임을 보여 주는군.

(가)

만약에 나라는 사람을 유심히 들여다본다고 하자
그러면 나는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먼 산정에 서 있는 마음으로 나의 자식과 나의 아내와
그 주위에 놓인 잡스러운 물건들을 본다

그리고

나는 이미 정해진 물체만을 보기로 결심하고 있는데
만약에 또 어느 나의 친구가 와서 나의 꿈을 깨워 주고
나의 그릇됨을 꾸짖어 주어도 좋다

함부로 흘리는 피가 싫어서
이다지 낱아빠진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리라
먼지 낀 잡초 우에
잠자는 구름이여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철 늦은 거미같이 존재 없이 살기도 어려운 일

방 두 칸과 마루 한 칸과 말쑥한 부엌과 애처로
운 처를 거느리고
외양만이라도 남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이다
지도 쑥스러울 수가 있을까

[A]

시를 배반하고 사는 마음이여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 살펴볼 수 없는 시인처럼
비참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거리에 나와서 집을 보고 집에 앉아서 거리를 그리던
어리석음도 이제는 모두 사라졌나 보다
날아간 제비와 같이

날아간 제비와 같이 자국도 꿈도 없이
어디로인지 알 수 없으나
어디로이든 가야 할 반역의 정신

나는 지금 산정에 있다—
시를 반역한 죄로
이 매마른 산정에서 오랫동안 꿈도 없이 바라보아야
할 구름
그리고 그 구름의 파수병인 나.

(나)

함이정 : 처녀 때 난 생각했었지. 영리하고 듩직한 아
들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쁜 일 슬픈 일 뭘
든지 의논할 수 있는 내 아들…… 그러다가 너를 느꼈
고…… 네 느낌과 이야기하길 즐겼다. 사람들은 나 혼
자 중얼중얼거린다고 괴상하게 보더라. 사실은 너와
나, 둘이서 함께 말하고 있었는데…….

조송인 :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어머니.

함이정 : 처음부터……?

조송인 : 네. 제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의 처녀 시절부터
요. 그때 두 분 아버지의 관계는 어땠죠?

함이정 : 그땐 좋았다. 두 분 다 우리 집에서 가족처럼 살
면서, 우리 아버님한테 불상 제작을 배우는 제자였지.
그런데 어느 날, 스승인 아버님이 불상 제작장에 가
보니까 두 제자들이 자릴 비우고 없었어. 몹시 화가
난 아버님은 집 안으로 들어와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
셨지. “동연아! 서연아!” 아버님 목소리가 어찌나 찌렁
찌렁 울렸는지, 천 리 밖까지 들릴 것 같더라.

(조명, 밝게 변화한다. ㉔한가운데 펼쳐 있던 천막이 접
혀지면서 무대 천장 위로 올라간다. 함묘진의 집. 함묘진
이 성난 모습으로 등장한다. 함이정과 조송인은 서연의
관, 촛대, 향로 등을 무대 밖으로 갖고 나간다.)

함묘진 : 동연아! 서연아! 어디 있느냐?

함이정 : (무대 밖에서) 여긴 없어요, 아버지.

함묘진 : 여기 집 안에도 없다……?

함이정 : (무대 밖에서) 내가 나가서 찾아올까요?

함묘진 : 넌 가만 있거라. (다시 외쳐 부른다.) 동연아! 서
연아!

(㉕상복을 벗고 밝은 색 옷을 입은 함이정과 조송인,
무대 안으로 나온다.)

조송인 : 할아버지 목청은 왜 저렇게 커요?

함이정 : 귀머거리도 들을 정도야. 그치?

함묘진 : 동연아! 서연아!

(동연과 서연, 등장한다. 그들은 당황한 모습으로 함묘진
앞에 선다.)

동연, 서연 : 부르셨습니까?
 함묘진 : 작업장엔 너희들이 없더구나!
 동연 : 죄송합니다. 잠깐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함묘진 : 밖에는 왜?
 동연 : 말다툼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달라서요.
 함묘진 : 말다툼?
 동연 : 네.
 함묘진 : 서연아, 네가 다툼 이유를 말해 봐라.
 서연 : 송구스럽습니다…….
 함묘진 : 너희 생각도 행동도 똑같았다. 그런 너희들이 말다툼을 하다니, 도대체 다르다면 뭐가 달랐더냐?
 서연 : 동연은 부처의 모습을 만들면, 그 모습 속에 부처의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함묘진 : 그런데, 너는?
 서연 : 그런데 저는…… 부처의 모습을 만들어도, 부처의 마음이 그 안에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했습니다.
 동연 : 사부님, 서연을 꾸짖어 주십시오. 서연은 쓸데없는 주장으로 저를 괴롭힙니다.

(중략)

(서연과 함이정, 일어선다. 돌부처를 만들면서 길을 따라간다. 물 흐르는 소리가 점점 가깝게 들려온다. ㉔조명, 개울물의 흐름을 나타낸다.)

함이정 : 개울물이에요, 서연 오빠. 여기서 길은 끊겼어요.
 서연 : (개울가로 다가가서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며) 너도 마시렴. 목마를 텐데…….
 함이정 : (서연 곁으로 가서 개울물을 바라본다.) 물 위에 비쳐 보여요, 우리 얼굴이…… 얼굴 뒤엔 구름이…… 구름 뒤엔 하늘이……. (물을 떠서 마신다.) 물이 맑고 시원해요.

[B]

(서연, 장난스럽게 개울물을 마치 눈덩이처럼 뭉치는 동작을 한다.)

함이정 : 오빠…… 뭘 하는 거죠?
 서연 : 물부처를 만든다.
 함이정 : 물부처요?
 서연 : 돌로도 부처님을 만드는데, 물이라고 안 될 건 없지.

(서연, 흐르는 물 속으로 들어가 물로 만든 부처를 세워 놓는다. 부처의 느낌은 남고 형태는 사라진다.)

함이정 : 오빠, 이쪽으로 나와요.
 서연 : (개울물을 건너가며) 난 이제 저쪽으로 간다.
 함이정 : 서연 오빠…….
 서연 : 넌 나중에 건너와.
 함이정 : (손을 흔든다.) 그래요, 오빠…… 먼저 가요. 나는 나중에…….

(서연과 함이정, 잠시 개울물 양쪽에서 서로를 바라본다. ㉕조송인이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두드리며 작곡 중이다. 개울물 건너쪽, 눈부시도록 밝아진다. 때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함묘진이 다급하게 휠체어 바퀴를 굴리면서 들어온다. 그는 피아노 옆을 지나 개울물을 건너간다. / 코러스(돌부처)들, 개울물을 건너가는 서연을 배웅하듯이, 따라가듯이, 마중하듯이, 서연과 함께 어우러져 춤을 추며 간다. 개울 저쪽, 눈부시도록 빛이 밝다. ㉖함묘진이 다급하게 휠체어 바퀴를 굴리며 들어온다.)

조송인 : 할아버지, 어딜 그렇게 급히 가세요?
 함묘진 : 극락문이 열렸다! 극락문이 열렸어!

(함묘진, 휠체어에서 일어난다. 그는 서연의 뒤를 따라 빛 안으로 들어간다. 무대 조명, 변화한다. 동연, 등장한다. 그는 조송인에게 다가와서 전보 용지를 내놓는다.)

-이강백, 「느낌, 극락같은」-

98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의 '물건들'까지 살펴보면서 자기의 생활을 성찰하고 있다.
- ② 화자는 '나의 친구'가 방문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삶이 '그릇됨'을 자각하고 있다.
- ③ 화자는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존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
- ④ 화자는 자신을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 살펴볼 수 없는' 비참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 ⑤ 화자는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죄'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구름의 파수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99 <보기>를 고려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구름의 파수병」에는 시와 생활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진솔한 자기 성찰이 드러난다. 화자는 ㉠생활에 몰두하려는 자아와 이러한 자아를 극복하고자 하면서 ㉡시를 새롭게 지향하려는 자아를 등장시킨다. ㉢은 시선을 고정하려는 태도나 움츠러들어 있는 이미지로 나타나는데, ㉣에서 벗어나 ㉤으로 변모하고자 하는 화자는 ‘날아간 제비’를 떠올리다가 ‘반역의 정신’을 추구하는 데 이른다.

- ①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에서는 화자의 진솔한 성찰의 어조가 느껴지는군.
- ② ‘나는 이미 정해진 ~ 결심하고’는 ㉢과 ㉤의 갈등을 해소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③ 화자가 자신을 ‘어디로이든 가야 할’ 존재로 여기는 것은 ㉢에서 ㉤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에서 비롯한 것이겠군.
- ④ 화자가 ‘메마른 산정’에서 지향하는 ‘반역의 정신’은 ㉤이 추구하는 것이겠군.
- ⑤ ‘구름의 파수병’은 두 자아의 갈등 속에서 시를 새롭게 지향하려는 화자의 의식이 반영된 이미지이겠군.

100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대상을 나열함으로써 화자의 정서가 촉발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② [B]는 의미가 확장되는 대상들의 연쇄를 통해 인물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A]의 대상들은 화자의 만족을, [B]의 대상들은 인물의 불만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
- ④ [A]에서는 화자와 대상들 간의 연속성이 드러나고, [B]에서는 인물 간의 단절감이 암시된다.
- ⑤ [A]와 [B]는 대상의 속성을 반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화자나 인물의 심리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101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는 희곡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무대 장치의 이동으로 극중 공간을 좌우로 분리시킨다.
- ② ㉡: 등장인물들의 의상 교체로 장면 전환을 나타낸다.
- ③ ㉢: 조명 변화를 통해 등장인물들의 갈등 해소를 보여준다.
- ④ ㉣: 등장인물이 무대 밖에서 피아노로 음향 효과를 낸다.
- ⑤ ㉤: 소품을 이용해서 극적 긴장감을 완화시킨다.

102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가)의 공간이 화자의 내면이 투영된 상징적 공간이라면, (나)의 공간은 제한된 시간 내에 인생을 압축해서 보여 줘야 하는 극의 특성상 극중 인물의 현실이 상징화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가)와 (나)에서, 공간들은 때로 대비되면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 ① (가)의 ‘집’과 ‘거리’는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했던 화자에게 대비적으로 인식되었던 공간이군.
- ② (가)에서 생활공간과 대비되는 ‘먼 산정’은 화자가 자신의 현실을 응시하기 위해 상정한 공간이군.
- ③ (나)에서 ‘작업장’은 불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동연과 서연의 예술관이 부딪치는 공간이군.
- ④ (나)의 ‘돌부처’를 만들며 가는 ‘길’은 ‘하늘’과 대비되는 곳으로 서연의 예술관이 조송인에게 전수되는 공간이군.
- ⑤ (나)의 개울물 ‘저쪽’은 개울물 ‘이쪽’과 대비되는 곳으로 예술의 본질을 추구하던 서연이 도달하게 되는 공간이군.

103 (나)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런데 어느 날, 스승인 아버님이 ~ 두 제자들이 자랄 비우고 없었어.”라는 대사에서 함이정은 극 중의 사건을 현재에서 과거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한다.
- ② “동연아! 서연아! 어디 있느냐?”라는 대사에서 함묘진은 ‘어머니의 처녀 시절’ 이야기 속의 인물들을 무대로 등장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 ③ “할아버지 목청은 왜 저렇게 커요?”라는 대사에서 조승인은 등장인물의 행동을 평하면서 다른 인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기능을 한다.
- ④ “서연은 쓸데없는 주장으로 저를 괴롭힙니다.”라는 대사에서 알 수 있듯 동연은 ‘어머니의 처녀 시절’ 이야기 속 갈등의 한 축으로서 기능한다.
- ⑤ “둘로도 부처님을 ~ 안 될 건 없지.”라는 대사에서 알 수 있듯 서연은 작품의 주제 의식을 전달하는 인물 중 하나로 기능한다.

[104~10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0.06 [32~36]

(해설 p.196)

(가)

문장(文章)을 헝자 헝니 인생식자(人生識字) 우환시(憂患始)*오

공맹(孔孟)을 비호려 헝니 도약등천(道若登天) 불가급(不可及)*이로다

이 내 몸 쓸 디 업스니 성대농포(聖代農圃)* 되오리라
<제1장>

홍진(紅塵)에 절교(絶交) 헝고 백운(白雲)으로 위우(爲友) 헝야

녹수(綠水) 청산(靑山)에 시름 업시 늘거 가니
이 등의 무한지락(無限至樂)을 헝스홀가 두려워라
<제3장>

인간(人間)의 벗 잇단 말가 나눈 알기 슬희여라
물외(物外)에 벗 업단 말가 나눈 알기 즐거워라
슬커나 즐겁거나 내 분인가 헝노라
<제6장>

유정(有情)코 무심(無心)홀 손 아마도 풍진(風塵) 봉우(朋友)

무심(無心)코 유정(有情)홀 손 아마도 강호(江湖) 구로(鷗鷺)

㉠이제야 작비금시(昨非今是)*을 씨드룬가 헝노라
<제8장>

도팽택(陶彭澤) 기관거(棄官去)*홀 제와 태부(太傅) 걸해귀(乞骸歸)*홀 제

호연(浩然) 행색(行色)을 뉘 아니 부러 헝리
알고도 부지지(不知止)* 헝니 나도 몰나 헝노라
<제9장>

인간(人間)의 풍우(風雨) 다(多) 헝니 므스 일 머므노
물외(物外)에 연하(煙霞) 족(足) 헝니 므스 일 아니 가리
이제논 가려 정(定) 헝니 일흥(逸興) 계워 헝노라
<제11장>

-안서우, 「유원십이곡」-

- * 인생식자 우환시 : 사람은 글자를 알게 되면서부터 근심이 시작됨.
- * 도약등천 불가급 : 도는 하늘로 오르는 것과 같아 미치기 어려움.
- * 성대농포 : 태평성대에 농사를 지음.
- * 작비금시 : 어제는 그르고 지금은 옳음.
- * 도팽택 기관거 : 도연명이 벼슬을 버리고 떠남.
- * 태부 걸해귀 : 한나라 태부 소광이 사직을 간청함.
- * 부지지 : 그만두어야 할 때를 알지 못함.

(나)

어느 날 나는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이었다. 정신이 산란하고 병이 아닌데 병이 든 듯하여 그 원기가 상했다. 가슴이 돌에 눌린 것처럼 답답한 게 게으름의 귀신이 든 것이 틀림없었다. 무당을 불러 귀신에게 말하게 했다.

“네가 내 속에 숨어들어서 큰 병이 났다. …(중략)… 게을러서 집을 수리할 생각도 못하며, 솔밭이 부러져도 게을러서 고치지 않고, 의복이 해져도 게을러서 깎지 않으며, 종들이 죄를 지어도 게을러서 묻지 않고,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도 게을러서 화를 내지 않아서, 마침내 날로 행동은 굼떠 가고, 마음은 바보가 되며, 용모는 날로 여위어 갈 뿐만 아니라 말수조차 줄어들고 있다. 이 모든 허물은 네가 내게 들어와 멋대로 함이라. 어쩌서 다른 이에게는 가지 않고 나만 따르며 귀찮게 구는가? 너는 어서 나를 떠나 저 낙토(樂土)로 가거라. 그러면 나에게는 너의 피해가 없고, 너도 너의 살 곳을 얻으리라.”

이에 귀신이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화를 입히겠습니까? 운명은 하늘에 있으니 나의 허물로 여기지 마십시오. 굳센 쇠는 부서지고 강한 나무는 부러지며, 깨끗한 것은 더러워지기 쉽고, 우뚝한 것은 꺾이기 쉽습니다. 굳은 돌은 고요함으로 이지러지지 않고, 높은 산은 고요함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은 쉽게 요절하고 고요한 것은 장수합니다. 지금 당신은 저 산처럼 오래 살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상의 근면은 화근이, 당신의 게으름은 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세력을 좇다 우왕좌왕하여 그때마다 시비의 소리가 분분하지만, 지금 당신은 물러나 앉았으니 당신에 대한 시비의 소리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또 세상 사람들은 물욕에 휘둘러서 이익을 얻기 위해 날뛰지만, 지금 당신은 걱정이 없어 제정신을 잘 보존하니, 당신에게 어느 것이 흉하고 어느 것이 길한 것이겠습니까? 당신이 이제부터 유지(有知)를 버리고 무지(無知)를 이루며, 유위(有爲)를 버리고 무위(無爲)

에 이르며, 유정(有情)을 버리고 무정(無情)을 지키며, 유생(有生)을 버리고 무생(無生)을 즐기면, 그 도는 죽지 않고 하늘과 함께 아득하여 태초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도 당신을 도울 것인데, 도리어 나를 나무라시니 자신의 처지를 아십시오. 그래서야 어디 되겠습니까?”

이에 나는 그만 말문이 막혔다. 그래서 ㉠앞으로 나의 잘못을 고칠 터이니 그대와 함께 살기를 바란다고 했더니, 게으름은 그제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있기로 했다.

-성현, 「조용(嘲慵)」-

104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조적 소재를 통해 삶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명령적 어조를 통해 세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진술하고 있다.
- ③ 공간의 이동을 통해 주어진 삶에 순응해야 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여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을 진술하고 있다.
- ⑤ 계절의 변화를 통해 과거와 대비되는 현재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105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유원십이곡」은 강호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노래지만, 화자는 강호에 머문 뒤에도 강호와 속세 사이에서 갈등을 반복한다. 이는 강호에서의 만족한 삶이라는 이상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화자가 갈등을 반복하면서도 항상 강호를 선택하는 모습은, 결국 자신의 결정이 가치 있는 것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① <제1장>의 초장에는 화자가 강호를 선택하게 되는 동기가 드러난다.
- ② <제3장>의 중장에는 강호를 선택한 삶의 모습이 긍정적으로 드러난다.
- ③ <제6장>의 종장에는 화자 자신이 분수에 맞는 선택을 했음이 드러난다.
- ④ <제9장>의 중장에는 속세에 미련을 갖게 하는 가치를 언급함으로써 화자의 갈등이 드러난다.
- ⑤ <제9장>의 종장에는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이, <제11장>의 종장에는 자신의 선택에 만족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106 절교와 위우를 중심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가 '절교'하고자 하는 대상은 '인간의 벗'으로 볼 수 있다.
- ② 화자는 '봉우'를 '절교'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화자는 '백운'과의 '위우'를 통해 '무한지락'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화자가 '위우'하고자 하는 '구로'는 '물외에 연하 족'한 곳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화자가 '물외에 벗'과 '위우'하고자 하는 이유는 '유정코 무심'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107 ㉠과 ㉡을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 화자는 ‘공맹을 비호’기 위해 ‘성대농포’의 길을 가야 함을 알게 되었다.
- ② ㉡의 ‘나’는 ‘태초와 하나가’ 되게 하는 상대방의 제안을 수용하며 ‘굳센 쇠’와 같은 변치 않는 삶을 다짐하고 있다.
- ③ ㉠의 화자는 ‘녹수 청산’에서의 삶을 즐거워하고, ㉡의 ‘나’는 ‘깨끗한 것’을 ‘길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④ ㉠의 화자는 현재의 삶이 옳음을 ‘찌든가’로 밝히고, ㉡의 ‘나’는 반성의 태도를 ‘고칠 터이니’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의 화자는 ‘풍우 다’한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의 ‘나’는 ‘시비의 소리’에 흔들렸던 자신의 잘못을 고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108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조용」에서 필자는 ‘나’와 ‘게으름 귀신’의 대화라는 구조를 활용하여 게으름에 대한 사색의 결과를 담아내고 있다. 필자는 게으름의 양면성을 드러내어 게으름의 부정적 측면을 경계하는 한편 게으름의 긍정적 측면을 통해 세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 준다.

- ① ‘나’가 무당을 내세워 ‘귀신’에게 말을 건네는 것에서, 자신의 게으름 생활에 대해 살펴보려는 필자의 모습을 알 수 있겠군.
- ② ‘나’가 집안의 대소사를 해결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행위를 나열하는 것에서, 게으름의 폐단을 드러내려는 필자의 생각을 알 수 있겠군.
- ③ ‘나’가 ‘멋대로’ 행동하는 게으름을 탓하면서도 게으름은 자신의 ‘허물’이라 여기는 것에서, 게으름의 양면성을 드러내려는 필자의 의도를 알 수 있겠군.
- ④ ‘나’가 게으름 덕분에 ‘물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귀신’의 말에서, 게으름의 긍정적 측면을 보여 주려는 필자의 의도를 알 수 있겠군.
- ⑤ ‘나’가 게으름 덕분에 세상 사람들과 달리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귀신’의 말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다투는 사람들에 대한 필자의 비판적 시각을 알 수 있겠군.